

코로나19, 고령자에겐 여전히 위험

광주·전남 확진자 수 7주만에 감소
60세 이상 위중증·사망자 급증세
고위험군 주의·관찰, 집단발생 대응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사망자·위중증 환자 수 모두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역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 하향 예고함에 따라 고령층 등 고위험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보호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월 2주(8월 6일~12일) 주간 신규 확진자는 3만

9279명으로 직전주보다 0.8% 증가했다. 증가율이 23.7%까지 치솟았던 7월 4주, 10.4%였던 8월 1주와 비교했을 때 증가 폭은 둔화했지만, 유행세에 뒤따른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와 일주일 간 사망자 수는 각각 전주 대비 21.5%, 40.2% 급증했다.
특히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사망률이 크게 늘었다. 8월 2주 코로나19로 인한 80세 이상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직전주(61명)보다 49.2% 급증했고, 이 연령대 위중증 환자 수도 31.4% 늘어 증가율이 가팔랐다.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주만에 감소했다. 지난 9~15일 광주는 1만422명, 전남은 1만1040명이 확진됐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광주 1489명, 전남 1577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7월 4일부터 6주 연속 증

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 기간 400~500명대였던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2~8일 광주 1732명, 전남 2025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감염재생산 지수도 광주 1.0, 전남 0.94로 각각 1.04, 1.03을 기록한 전주보다 낮아졌다.
다만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은 29.3%로 전주(29.1%)보다 높았으며, 사망자(8명)와 주간 치명률(0.08%)도 전주(3명·0.02%) 대비 증가했다. 다행인 점은 전남 치료병상 가동률이 50%로 안정적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사망자, 치명률도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해 고위험군 주의, 관찰을 지속해야 한다"며 "자치구와 함께 구성한 전담 대응팀 등을 통해 고위험군과 집단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서원·산사·고택으로 시간여행 떠나요”

광주시, 자치구와 함께 11월까지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서원, 종갓집, 전통산사 등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인 ‘하반기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매년 문화재청 공모를 통해 자치구별로 진행한다.
올해는 5개 분야(문화재야행, 생생문화재, 고택·종갓집, 향교·서원, 전통산사) 9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중 상반기에 동구 달빛야행(문화재야행)과 돌의 봄(생생문화재) 등 2개 사업은 진행됐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7개 사업, 21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생생문화재 활용 분야로 서구에선 서창(西倉)들녘에 부는 바람이, 북구에선 김덕령장군과 함께 놀자와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 등 3개 사업이 진행된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으로는 광산구에서 11월까지 광산 사계 몽(夢) 사업을 통해 ‘용아 살롱 시인의 사계(용아생가)’, ‘농가의 사계(김봉호 가옥)’, ‘고택의 사계(장덕동 근대환

옥)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연다. 고택·종갓집의 역사, 의례 등을 직접 참여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향교·서원 문화재와 배향 인물이 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는 역사인문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광산구에서 서원 헤드쿼터, 월봉(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무양서원) 등 2개 사업을 운영한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북구에서 ‘산사에서 찾는 소확행’ 프로그램이 열린다. 원효사와 무등산 일대에서 전통사찰이 보유한 문화재 가치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동부도 탐방길 컬리링스쿨’, ‘처음이자 밤사이의 무등산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송영희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장은 “하반기에 진행되는 문화재 활용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광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독도는 우리땅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 일본 기상청이 제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취지로 표기하는 한편, 지난 2월 미국은 한미일 훈련을 실시한 동해 상에서의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명칭했으며, 앞으로도 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전국체전,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라”

실·국과 전 직원 업무 분장 지시
시·군, 체육회 등과 유기적 협력

전남도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올 하반기 전국체전 등 초대형 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모든 실국이 참여해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요 현안회의를 열고 “올해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은 코로나 일상회복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선수단과 관람객 등 4만여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대 체전이 15년만에 예정 전장에서 열리는 만큼 모든 실·국과 전 직원이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분장해 지역 자연과 문화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체전,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도뿐 아니라 시·군, 체육회, 유관기관과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찾아내 실행 가능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 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19일 목포를 비롯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8일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민변,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부상대 헌법소원

청구인 ‘해녀·고래’ 등 4만여명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6일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모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국 ‘백만장자’ 125만4천명...전 세계 2% 수준

지난해 미 달러화 환산 기준 100만달러(약 13억4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인(성인 기준)은 125만4000명으로, 전 세계 ‘백만장자’의 약 2%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됐다.
투자은행(IB) 크레디트 스위스(CS)가 15일(현지시간) 발간한 ‘2023 글로벌 웰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이른바 ‘백만장자’는 5939만 1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는 1년 전의 6289만 9000명보다 350만8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미국이 177만명이 감소했으며 이어 일본

(46만6000명), 영국(43만9000명), 호주(36만 3000명), 캐나다(29만9000명), 독일(25만 3000명) 등 순으로 줄었다.
한국은 125만4000명으로 상위 10위에 위치했으며 이탈리아(133만), 네덜란드(117만), 스페인(113만) 등과 함께 전체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129만 명이었다. 5년 후인 2027년 한국의 백만장자의 수는 205만9000명으로 64% 증가해 순위가 이탈리아(166만5천명)를 제치고 한단계 오른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하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올포해수욕장인근)

-경관 수려, 다세대, 숙박시설·펜션 등 적합
-445평과 210평, 도로 증음, 평당 100만원

무안군 운남면 내리 3,940㎡ (1,191평)

-공시가 45백 527천원 전원생활적합. 1억1,900만원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집 땅 4,650㎡ (1,406평)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가가 1억6천

화순군 동면 장동리 (776평)

-조용한 생활적합. 7,2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투자 등 적합 1억5,500 (평당 10,778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회사는 2023년 7월 10일 주주총회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게시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주식회사 티에스에너지18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전자동공단지길 32
청산인 윤정택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08월 10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8월 14일 해산당시를 완료하였으나,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게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7일
주식회사 이랩
광주광역시북구 삼소로270번길 25, 803호(월출동광주이노비즈센터)
청산인 기승도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장선호(030428-XXXXXXX)
• 최후주소: 광주 광산구 수원로33번길 22, 105동 1304호(수원동, 수원1차우미림아파트)
피상속인 망 장선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나단642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9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17일
• 상속인: 장평석(700525-XXXXXXX) 광주시 광안동 읍정길 22, 105동 1304호(수원동, 수원1차우미림아파트)
• 신고기간: 2023. 8. 17. ~ 2023. 10. 27.
• 채권신고처: 상속인 장평석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동국(610731-XXXXXXX)
• 최후주소: 광양시 광양읍 읍정길 9-4, 3층
• 등록기준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읍정길 8
피상속인 망 김동국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나단347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17일
• 상속인: 1. 정민심(730215-XXXXXXX) 광양시 광양읍 읍정길 9-4, 3층 2. 김요정(910723-XXXXXXX) 광양시 행정1길 9, 509동 309호 (중흥, 동광아파트)
• 신고기간: 2023. 8. 17. ~ 2023. 10. 27.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1.정민심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승현(590425-XXXXXXX)
• 최후주소: 광주 북구 근영로207번길 20, 103동 917호(화동, 격파우미림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승현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나단3703호로 신청하여 2023년 8월 14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8월 17일
• 상속인: 이미정(841017-XXXXXXX) 김해시 삼남로112번길 97, 502호 (삼남동)
• 신고기간: 2023. 8. 17. ~ 2023. 10. 27.
• 채권신고처: 상속인 이미정의 주소

분실공고

• 분양계약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49번길 12 대림광주모아스트 104동 404호
• 계약자: 장영서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3년 8월 17일

산행안내

8월(19일) 정기 (제57차) 정지산행 내연산 12코트, 소금강 전망대 트레킹 및 화장 스페이스코오전 5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식점출발 05시 45분 진월동 육교 밑 05시 50분 백운우계곡 06시 롯데마트회점 06시15분 광주예술회관전담 후문 010-4621-2166, 010-6702-9776 http://cate.daum.net/gwangjushisan

光州日報

지역안내

북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영 신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흥 433-1503 • 우 산 433-1503
동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0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화 675-6605 • 진 월 671-7276
서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통 일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문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신 944-0444